생명의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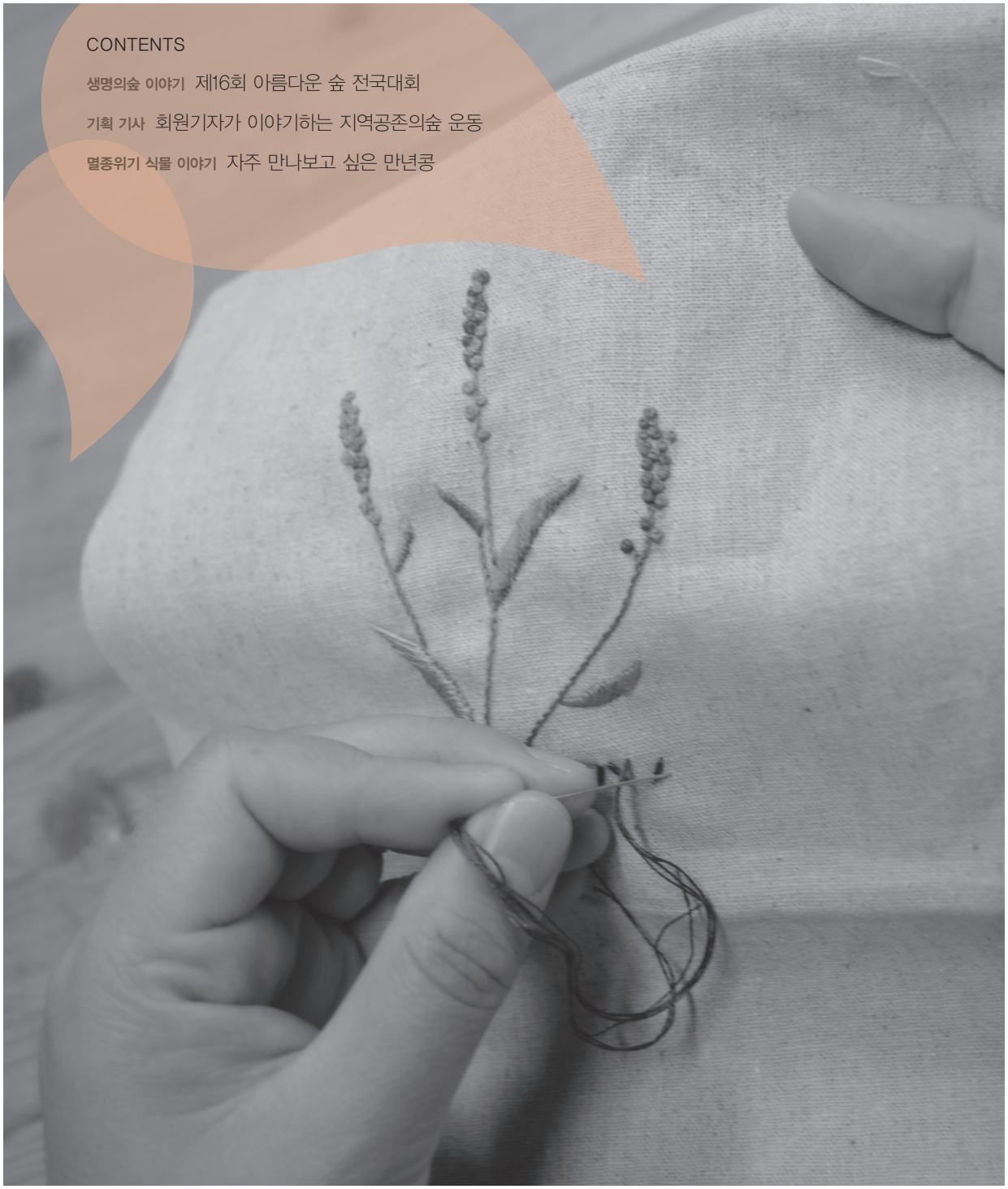
숲과 사람들

회원이 만드는 소식지

NO. 44
2016년 11월 · 12월

CONTENTS

생명의숲 이야기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기획 기사 회원기자가 이야기하는 지역공존의숲 운동
멸종위기 식물 이야기 자주 만나보고 싶은 만년콩



숲문화아카데미_야생화 자수로 맞이한 가을 숲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산속의 조용한 절을 찾았다.
보슬보슬 내리는 싱그러운 비가
얼룩진 마음을 씻어주었다.
어느새 나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서산 도비산 부석사에서

글. 조길용 회원기자 jogy1202@gmail.com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숲과 사람을 잇다, 과거와 미래를 잇다

다양한 생명이 숨 쉬는 숲, 함께 지키고 가꾸는 숲, 숲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다. 생명의숲은 산림청, 유한킴벌리와 함께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를 통해 올해까지 247개소의 아름다운 숲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시민과 공유해왔습니다. 올해 16회 대회에서는 11개의 아름다운 숲이 선정되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뽑힌 생명상(대상)은 어디일까요? 회원님들께 소개합니다.

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생명상(대상)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소나무숲

위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 29 일원
주요수종 소나무
관리주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수도권 최대 아름드리 소나무숲

남한산성에 60ha 규모의 성곽을 따라 아름드리 소나무 14,000그루가 살고 있는 숲이 있다.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소나무 숲은 유지 관리가 잘되어 연간 방문객이 315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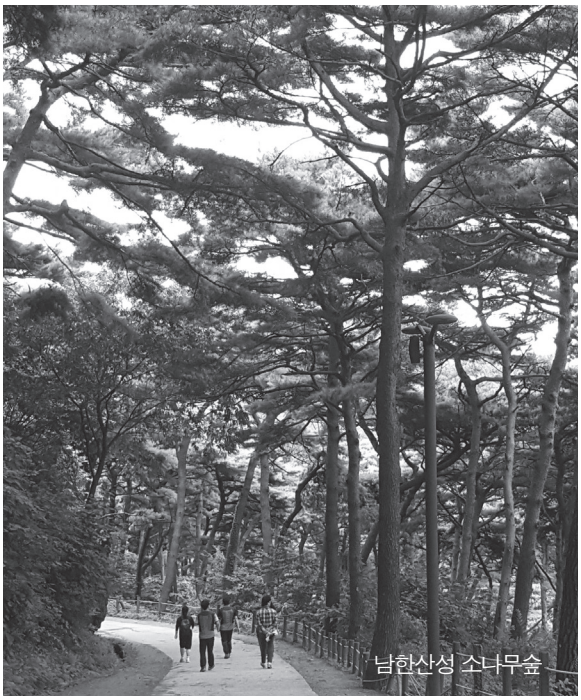
지역 주민이 지키고 키워낸 이야기가 있는 곳

조선시대부터 보호되었던 이곳은 철종과 고종 때 소나무를 심었던 기록이 문헌으로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전쟁 물자와 땔감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본 마을 주민 303인이 합심하여 금림조합을 결성, 극빈자 50명을 뽑아 급료를 지급하고 순산원의 역할을 하게 해 도벌을 막았다고 한다. '산성리 금림조합장 불망비'가 아직도 남아 있어 숲에 대한 지역주민의 각별한 애정을 실감하게 한다.

16회 대회 공존상, 누리상, 숲지킴이상 명단과 사진,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숲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 공모 2016.6.23 ~ 8.10.
- 심사기준 생태적, 역사문화적, 경관적 가치
지역 기여도, 활용 콘텐츠
관리주체의 노력, 관리 체계
- 심사방법 선정위원회 통한 서류 및 현장심사
온라인 시민투표 진행
- 시상 생명상(대상), 공존상(우수),
누리상(온라인 최다 득표)
- 수상혜택 관리주체 상금, 인증 현판, 신청자 상금


남한산성 소나무숲

숲도 사람도 건강해지는 지역공존의숲 운동

지역, 공존, 숲. 친근하고 뭔가 좋은 느낌을 가진 단어들의 조합이지만 이름만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활동이다. 그동안 소식지 기획기사 지면을 통해 생명의숲의 운동 분야를 한 가지씩 소개해 왔다. 숲보전정책, 사회복지숲, 숲문화교육, 학교숲 운동에 이어 오늘은 그간 회원에 소개되지 않았던 '지역공존의 숲'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성공한 녹화, 빈약한 숲 관리

일제 강점기,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리나라의 숲은 7~80년대 녹화 사업을 통해 울창해졌다. 1982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했으며, 그 경험은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파되고 있다. 반면, 숲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했다. 심어놓고 가꾸지 않은 숲은 생장이 느리고 병충해에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

1998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숲 가꾸기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다

1998년 IMF 외환위기의 국가적 비상사태로 수많은 실업자가 넘쳐나던 시기, 생명의숲은 숲가꾸기 운동을 시작했다. 허약한 숲을 가꾸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을 일자리 고용으로 연결했다. 시민사회 · 정부기관 · 기업 · 학계가 협력해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을 만들어 냈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자로 모집하고 교육해 숲가꾸기 현장에 투입했는데, 1998년부터 5년간 15,544,000명을 고용해 440,000ha의 숲을 가꿨다.

숲과 사람, 그 공존의 가능성을 확인하다

외환위기로 시작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생태적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고, 가장 성공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평가 받았다. 무엇보다, 숲은 배경이 아니라 일터이고 삶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고, 숲이 건강을 되찾고 사람이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숲과 사람이 서로의 힘으로 서로의 활력을 찾아주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숲과의 적극적인 공존이 개인과 사회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숲 관리의 주체, 시민

십수 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숲은 여전히 가꾸기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제는 숲의 혜택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있지만, 이용에 따른 훼손을 막기에는 정부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다. 시민들이 누리는 숲, 시민이 관리해야한다. 수혜자이자 이용자며 훼손자인 시민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숲을 가꾸고 그 가치를 나누는 주체로 커 갈 수 있다면 숲도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명의숲은 2014년부터 유한킴벌리와 함께 '지역 공존의 숲'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숲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또 그 숲을 통해 시민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대전, 김천, 충주 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림관리, 시민활동가양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지역별로 같은 듯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축구장 580개 규모, 탄소 흡수에 최적화된 숲

탄소 흡수를 높여 기후변화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404ha의 숲을 관리한다. 장소에 맞는 적절한 나무를 심고,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왕성하게 생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전, 김천 지역 공존의 숲은 산림탄소센터에 산림탄소상쇄림으로 등록되어 국내 최대 규모로 인정받기도 했

으며, 충주 지역은 등록을 준비 중이다.

보존과 적절한 이용이 공존할 수 있는 숲

숲의 빽빽함을 조절해 생태적으로 건강성을 찾게 하고, 숲을 소비하는 문화가 아닌 숲을 느끼고 가꾸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숲길을 정비하기도 했다.

숲과 사람이 함께 건강해지는 시민 참여 숲 관리

잘 가꾸어진 숲에서 교육이나 탐방을 통해 정서적 건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숲을 건강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사람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공존의숲에서 나무심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의 숲 가꾸기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그린 짐(Green Gym)이라는 이름으로 숲 가꾸기 작업과 운동 치료를 겸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천 숲지킴이 교육-가지치기

시민과 함께 숲을 가꾸고 돌보는 리더, 숲지킴이

위에서 언급된 프로그램들과 함께 숲을 관찰하고 변화를 기록해나가는 일 역시 중요한데, 이 역할은 시민, 특히 지역 공존의 숲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자원활동가가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숲의 자원을 찾아내고,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며 지역사회에 산림복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주체. 생명의숲은 이 시민 리더그룹을 '숲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양성해내고 시민참여의 주체로 세워나간다.

시민단체 · 정부 · 기업의 협력, 그리고 지역별 맞춤

이 모든 일은 민간 · 정부 · 기업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공동의 노력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중앙과 지역의 생명의숲, 지방산림청이나 지자체, 유한킴벌리 본사와 지역공장이 모여 정기적인 회의구조 안에서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주요 사안들을 결정해 나간다. 여기에 각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인다. 대전, 김천, 충주 지역 공존의 숲 마다 각각의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과 해당 숲에 적합한 고민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결국, 생명의숲이 지역공존의숲을 통해 만들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모델이다.

- 기후변화를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숲
- 숲의 이용이 건강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숲
- 숲에 대해 고민하고 가꾸며 지역사회와 가치를 나누는 시민
- 다양한 주체들이 숲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 하는 지역사회

지역공존의숲 활동을 위해 수시로 서울-대전-김천-충주를 오가는 활동가는 말한다.

"우리가 만드는 이 모델이 숲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해가고, 숲을 통해 사람과 사회가 건강해지는 바탕이 되길 꿈꿉니다."

지역공존의숲 활동에 대한 문의는
공존의숲팀 최승희 활동가 02-499-6214

2016, 온라인에서 만난 생명의숲

'어떻게 하면 생명의숲 활동을 많은 시민에게 전할 수 있을까?'
2015년부터 생명의숲 활동가가 되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저는 참여의숲팀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오주영입니다. 활동가로 1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생명의숲의 활동은 생각보다 제 일상 가까이에 있었는데 '생명의숲'이라는 단체는 그보다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엔 무엇보 더 많은 시민에게 생명의숲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친근하게 알리기에 집중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중심으로 일상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활동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력했는데요. 현장 활동과 온라인을 연결하며 보다 많은 시민에게 숲과, 생명의숲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숲을 위한 + - × ÷ 캠페인

건강한 숲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야할까요?

- 숲에 나무를 + 더하기
  시민 나무심기
- 건강한 숲을 위한 − 빼기
  봄철 나들이 가는 길, 이것만은 빼기(6가지)
- 숲에 대한 마음 × 곱하기
  생명의숲 회원되기
- 숲에 대한 생각, 아름다운숲 등 다양한 시민프로그램 ÷ 나누기

생명의숲, 더더더 캠페인

시민에게 더 가까이, 생명의숲 더더더

- 숲을 **더** 건강하게 즐기기!
  숲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 우리가 알고 있던 숲, **더** 알기!
  크낙새가 전하는 광릉숲이야기, 남산비긴즈
- 숲을 위한 시민의 참여, **더** 하기!
  숲을 위한 우리의 행동 더 하기!
- 숲에 대한 마음을 **더** 갖기
  시민의숲, 축하의 마음 더!

온라인에서 생명의숲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블로그, 해피빈, 페이스북,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에서 생명의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현장감 있는 활동 이야기뿐만 아니라 건강한 숲을 위한 생각 나누기, 서른살 시민의숲에게 축하의 덕담 남기기, 내가 만난 남산숲 사진 댓글 남기기를 참여이벤트로, 우리가 몰랐던 광릉숲, 크낙새가 전하는 광릉숲, 남산비긴즈를 카드뉴스로 시민과 함께 나누고, 알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과 나눴던 카드뉴스들

요즘같이 많은 정보가 SNS를 통해 쏟아지는 때에 생명의숲 활동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생명의숲 운동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신 회원의 적극적인 공유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옛말처럼 건강한 숲을 위한 마음,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누군가와 나누는 건 어떨까요?

facebook 페이스북 유저라면, 검색창에 '생명의숲'을 찾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 오주영 활동가

나도풍란 · 풍란 · 광릉요강꽃 · 암매 · 만년콩 · 죽백란 · 털복주머니란 · 섬개야광나무 · 한란

자주 만나보고 싶은 만년콩

© jeju.go.kr

'콩'이라 하면 보통 꼬투리 속에 여러 개의 콩이 든, 밥상에 올라오는 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년콩은 다른 콩과식물과는 달리 꼬투리가 달리지 않고 바로 열매가 달리죠. 검은색의 이 열매 속에는 1개의 씨앗만이 들어있답니다.

만년콩은 사계절 푸른 상록성이고, 처음 채집한 사람(김이만)의 이름 끝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라면서 뿌리부분은 굵고 비스듬히 자라 많이 커봐야 60cm를 넘지 않는 키 작은 나무입니다. 뿌리는 약용으로 쓰이고 희귀하며, 관상가치가 높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제주도의 서귀포지역에 있는데 무분별한 채취로 지금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돈내코 계곡 일대에서 한라산연구소 주관으로 자생지 복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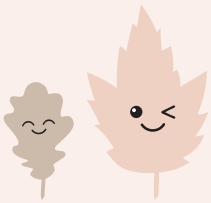
잎 모양도, 꽃 모양도 영락없이 흔히 보는 콩을 닮았는데, 만년콩은 어쩌다 귀한 몸이 되었을까요. 이름만큼이나 오래도록, 제주도 숲 여기저기에서 만년콩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글. 김양숙 회원기자 aesop4@hanmail.net

11월, 12월의 자연놀이

나는 누구일까요? '나뭇잎 가면놀이'

글. 사진. 안민자 회원기자 amj138612@naver.com



낙엽 진 가을! 여러 모양, 색깔의 나뭇잎으로 다양한 가면을 만들어 보자.

1. 주변에서 다양한 크기와 여러 색깔의 나뭇잎을 주워온다.
2. 색깔과 모양을 관찰하고 분류하는 놀이를 한다.
3. 느티나무, 벚나무는 잎맥을 따라 가위로 자르고 잎자루를 잎 끝에 끼워 여우 얼굴을 만들 수 있다. 눈을 그리거나 스티커 붙여 완성한다.
4. 일본목련은 얼굴을 덮을 만한 것을 고른 후, 코와 입 위치를 가위로 잘라내고 눈 스티커 붙여 완성한다.
5. 각자 가면을 만들어 놓고 서로의 모양을 돌아본다.

코, 입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고, 눈의 모양에 따라서도 표정을 다르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완성된 가면을 들고 질문을 던지며 'OO나무 되어보기' 역할극을 해보자.

- 나무는 우리를 보며 무엇이라 말할까?
- 나뭇잎이 떨어질 때 무슨 말을 할까?
- 물이 부족하면 무어라 할까?
- 지금처럼 추워지면 어떤 말을 할까?

엄마와 아이, 나무와 사람 등 역할을 바꾸어 가며 즐겁게 가면놀이를 하다보면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나무는 잎을 떨구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즐거운 놀이감을 주고 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

정희 회원기자 whitny72@naver.com

꽃의 지혜

모리스 마테를링크 지음 / 성귀수 옮김 / 조영선 그림 / 김영사 / 2008년 5월

우리는 흔히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가녀린 야생화를 바라보며 별다른 감흥이 없거나 그나마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저 예쁘다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도 바람에 날린 꽃씨의 발아와 성장, 개화,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절한 생존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비바람과 같은 모진 기후환경을 견뎌내고 주변 동물과 곤충 등이 주는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면서 후세를 남기기 위해 펼치는 꽃들의 전략과 지혜는 놀랍기만 하다. 작가는 이러한 꽃의 탄생과 소멸의 위대한 생존 드라마를 인간의 삶과 운명에 접근시켜 우리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나무를 안아보았나요

조안 말루프 지음 / 주혜명 옮김 / 존 에보트 그림 / 아르고스 / 2005년 11월

이 책은 법정스님이 '내가 사랑한 책들'에서 34번째로 추천한 도서이다. 법정스님은 이 책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읽으신 듯하다. 조안 말루프는 대단히 나무를 사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나무에 대해 속속들이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나무와 공생하는 곤충, 동물의 이야기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의 힘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책에 실린 나무와 풀, 곤충들의 삽화는 200년 전에 존 에보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들을 보고 있자면 존 에보트 또한 조안 말루프 만큼이나 나무와 나무 주변의 생물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느껴진다.

초록퍼즐

◎ 출제 안민자 회원기자 amj138612@naver.com

	①	⑧			②	⑨
③⑩				⑪		
④				⑤		⑬
		⑫				
		⑥			⑦	

가로

①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
② 속살은 지방이 많고 맛이 고소하며, 천안의 명물
③ 철거 위기의 서울역고가에서 가드닝과 공원 해설로 시민과 만나는 사람들.
④ 나비와 비슷하나 몸이 더 통통하고 밤에 주로 활동한다.
⑤ 가을에 많이 보이며, 벌새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나방의 종류이다.
⑥ 가을과 봄 사이의 계절
⑦ 천연으로 나며 질이 고르고 화학적으로 일정한 물질

세로

⑧ 팔만대장경과 해인사를 품고 있으며, 13회 아름다운숲 공존상을 수상한 곳.
⑨ 수명은 평균 3~4년이나 8년 이상 살기도 하는 땅속 생물.
⑩ 추어탕을 끓일 때 이 나무의 잎이나 열매를 갈아 비린내를 없앰.
⑪ 호박 가운데 전분과 미네랄, 비타민 등의 함량이 많고 맛이 좋아 식용으로 재배하는 호박.
⑫ 현미를 도정하여 백미를 만들 때 생기는 껍질로 미강이라고 한다.
⑬ ○○○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갔다♬

②번의 첫 글자와 ⑤번의 첫 글자?

지난 43호 정답 : 대숲

정답 보내실 곳 | FORESTFL@chol.com

정답을 보내주세요.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손수건을 보내드립니다.

양예수 회원님, 권은주님 감사합니다.

그대를 이 아름다운 소리로 간직하리

- 갈대로 변한 요정, 쉬링크스

"엄마, 금요일에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오실 거죠?"
"그럼, 누가 하는 공연인데 당연히 가봐야지. 플루트 연주 기대되는 걸."
"기대는 그닥… 좀 속상한 게 있는데요. 플루트소리는 항상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른 악기 연주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느낄 거야. 오케스트라 연주는 그래야 해. 서로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니까."
"그래도요."
"그래도 엄마 귀에는 우리 수영이가 부는 플루트 소리만 들릴 거 같은데? 갈대 피리로 변한 요정처럼 아름다운 소릴 내 봐."
"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긴데, 너 헤르메스 알지? 날개 달린 가죽신을 신고 요술지팡이를 든 전령신 헤르메스말야. 그 헤르메스에게 갈대 피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두 빠져들었대. 그 갈대피리에 대한 이야기 들려줄게.

옛날 아르카디아의 어느 산자락에 쉬링크스라는 요정이 살고 있었어. 이 요정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건 바로 아름다운 아르테미스 여신과 착각할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이래.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콧대 높기로 소문이 난 요정이었지. 실제로 쉬링크스 요정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좋아해 닮으려고 애썼어. 머리모양도 똑같이 하고 사냥복도 똑같은 것으로 입고 활도 똑같이 맸지. 물론 하는 행동이나 걷는 모습까지도 말이야. 다른 것이 있다면 쉬링크스 요정의 활은 뿔로 만든 것이고 아르테미스 여신의 활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정도? 아르테미스 여신은 사냥의 여신이자 결혼을 싫어하는 처녀의 신이잖아. 쉬링크스 요정도 그랬어. 아르테미스 여신처럼 사냥도 잘하고 씩씩하고 도도했지만 무엇보다 결혼을 경멸했지. 그런 쉬링크스 요정에게 어느 날 소나무 잎으로 관을 쓴 나무신이 은근한 눈길을 보내며 따라왔어.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 울창한 숲이나 비옥한 들판에 사는 신들에게 여러 번 사랑의 고백을 받았지만 번번이 거절했지. 쉬링크스가 이렇게 눈길을 주지 않거나 도도하게 굴면 대부분 포기를 하는데 소나무 잎 관을 쓴 나무신은 아니었어.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야. 쉬링크스는 나무신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 숲을 지나 모래가 쌓인 강가까지 달아났지. 이제 강물에 막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었어. 쉬링크스는 강가에 주저 앉았어. 뒤따라 오던 나무신이 가까워지자 쉬링크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신이시여, 제 기도를 먼저 들은 신이시여. 들어주소서. 제 모습을 무엇으로든 바꿔주세요!"
쫓아온 나무신은 쉬링크스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겠구나 생각하며 옷자락을 덥석 잡았지. 그런데 손에 잡힌 것은 한 줌의 갈대였어. 기도를 제일 먼저 들은 강의 신이 쉬링크스를 갈대로 변신 시켰던 거야.
나무신은 아쉽고 슬픈 마음에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 그 한숨 소리가 갈대에 스치자 가냘프고도 애절한 소리가 들려 왔지. 나무신은 갈대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 나무신은 갈대를 꺾은 다음 나란히 이어 붙여 피리를 만들었어.
"쉬링크스, 나는 그대를 이 아름다운 소리로 간직하겠소."
이렇게 말한 나무신은 그 피리에 쉬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언제나 불고 다녔대.

"엄마, 갈대 피리 소리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
"팬플루트가 쉬링크스야. 지금은 대나무로 이어 붙여 만들지만 말이야. 구슬픈 소리가 가슴을 울리지. 그 소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참, 엄마, 아까 헤르메스가 갈대피리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무신의 갈대피리를 어떻게 헤르메스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게.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네. 아기 때부터 아폴론의 소를 백 마리나 훔친 헤르메스니까 실력으로 슬쩍 한 걸까?^^ 아무튼 헤르메스는 이 갈대피리로 눈이 백 개 달린 괴물 아르고스도 죽이고 암소로 변한 이오 공주도 구한단다."
"와, 그 이야기도 재미있겠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줄게."

글. 류춘희 orora13@naver.com 그림. 김나영

내가 즐거운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해야죠.
김태휘 회원

김태휘(55) 회원께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마침 주말에 창덕궁에서 궁궐 길라잡이로 후원 정규 해설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다. 창덕궁 후원이라면 늦가을 혼자서도 가보곤 하던 옛 이름 비원이 아니던가! 창덕궁 후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다른 날은 잡을 생각지도 않고 김태휘 회원이 정규 해설하는 일요일을 고대하며 기다렸다.

인터뷰 약속이 있던 날은 오후가 되면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비는 궁궐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니는데 운치를 더했고 한층 고즈넉한 고요를 불러왔다. 규장각이 있는 부용지를 지나 깊숙이 숨어있는 옥류천 정원을 돌아 나오는 길 요소요소에서 김태휘 회원의 해설이 곁들여졌다. 그의 묵직한 중저음의 해설은 궁궐이라는 공간과 잘 어울렸고 도포자락 대신 레인코트 입은 선비의 안내를 받는 듯했다. 한 시간 반가량의 후원해설을 마치고 궁궐의 툇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후원 해설 참 유익했습니다. 창덕궁 후원해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창덕궁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어요. 그전에 2012년부터 개인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와 나무이야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인문학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그때 생각했죠. 생태에 인문학을 더하면 좋겠다. 생태적 삶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역사와 나무이야기를 해설하면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왜 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여기서 활동하게 되었지요. 5대 궁궐과 종묘에서 해설 자원봉사를 하려면 약 1년간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생태적인 삶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에 살면서도 숲과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죠. 2014년부터 (사)도시농업포럼 사무총장도 맡고 있는데 텃밭도 가꾸고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죠. 생태적인 삶을 살다 보면 소통하는 삶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수반을 걸어두었는데요. 아침마다 물을 갈아줍니다. 수반을 걸어두면 새들도 날아와서 먹고 가고 나비도 곤충도 날아옵니다. 개미나 작은 곤충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깊이는 1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작은 가지도 하나 걸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빠지지도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실천이 사람은 물론 곤충과 새들과도 소통하게 되지요.

생명의숲 회원으로는 어떻게 가입하게 되었나요?

생명의숲 초창기부터 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경을 전공하고 조경 분야에 계속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회원으로 가입한지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생명의숲에서 귀농귀촌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여하는 기회도 주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개도 하고 있지요. 생명의숲 남산지킴이 활동도 좋고 귀농귀촌 프로그램도 훌륭합니다. 다양한 강의 기획도 참 좋습니다. 유한킴벌리 회사가 오랫동안 후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이 유한킴벌리라는 회사 이미지도 상당히 좋게 하지만 생명의숲 이미지도 상승시키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숲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활동가들이 매우 젊은 편인데 50대 및 60대 이상 시니어도

한 두 명 상근직으로 채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을 가졌으면 하는 거죠.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 다양해 질 수 있거든요. 노년층을 위한 공감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건 교수나 저명인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수준급인 사람들이 강의나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숲과 생태분야에서 만큼은 생명의숲이 한발 앞서서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10년 넘게 조경설계 · 시공회사를 운영하다 지금은 종합건설회사도 함께 운영한다는 김태휘 회원은 건설업계도 함께 성장하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말을 봉사활동으로 보내는 그에게 남다른 꿈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을 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책을 쓰고 있어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역사관련 책이고 하나는 나무이야기에요. 이건 다 노후를 위해 하는 겁니다. 노후에 즐겁게 살기 위한 준비이지요. 경제적인 것도 준비해야겠지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즐거운 활동이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er. 류춘희 회원기자 orora13@naver.com

숲문화아카데미 참여 후기

"자수로 꽃 피워요" 야생화로 수놓던 날

파란하늘이 예쁜 가을, 설레는 마음으로 생명의숲을 찾았다. '에코주머니에 자수로 꽃을 피워요'라는 말에 학교 다닐 적 배웠던 자수 생각도 나고 너무 반갑고 기대가 되었다. 얼마 전부터 자수가 사랑스러워 브로치랑 광목천을 사서 가장 쉬운 레이지데이지수를 놓으며 행복했던 참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멀리 광주에서 강사 선생님이 오셨다. 선생님이 만들어온 야생화 자수 작품들을 펼쳐 놓는 순간, 나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은 놀라며 행복하고 기뻐했다.

드디어 선생님이 나누어주신 천위에 한 땀 한 땀 배우며 놓은 수는 쑥부쟁이, 질경이, 여뀌 꽃이 되었다. 수를 놓은 뒤에는 주머니를 만들어 놓으니 아름다운 야생화가 활짝 핀 에코주머니가 완성되었다. 너무나 짧게 느껴진 두 시간. 들에 핀 야생화를 하얀 천위에 수로 놓으니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글. 위미숙 회원

숲과사람들을 만드는 자원봉사 모임, 회원기자단을 소개합니다.

소식지 속 곳곳에 보이는 낯익은 이름들. 과연 어떤 회원들이 숲과사람들에 함께 하고 있을까요? 회원기자단에서 짧은 인사를 전합니다.

정희 직장에 다니면서 살림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이지만 꿈도 많고 뜨거운 열정으로 늘 무언가에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번 숲과사람들 44호가 올해 마지막 발행입니다. 내년에도 숲과사람들 받으시면 꼭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생명의숲에서 하는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좀 더 많은 회원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뵙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직접 활동에 참여해보지 않으신 회원분들, 숲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해요!

류춘희 '자연과 아이와 시'라는 키워드를 가슴에 담고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숲과 글이 좋아 2011년 숲과사람들 11호 때부터 회원기자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벌써 44호, 햇수로는 6년이 되었네요.(뿌듯뿌듯^^)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한 회 한 회 소식지가 나올 때마다 미묘한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민자 2007년 생명의숲 회원활동을 시작해 소식지 초기부터 회원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둘레길 활동에 관심이 많아 도란도란 둘레길을 함께 하기도 하고 노원둘레길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오래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식물을 나누어 기르고 관찰한 내용을 공유하는 숲누리식물교실 회원들과의 만남은 삶의 활력이 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즈음은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상근을 하게 되어 자주 못 만나 아쉽지만, 언제나 정이 넘치는 가족으로 생명의 숲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양숙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흐리면 분위가 좋아서 좋고, 날씨가 화창하면 깨끗한 하늘만큼 기분이 좋아서 좋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냥 좋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닉네임이 '날씨좋다'입니다. 앞으로 숲과사람들을 통해 작은 행복이나마 같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심미숙 생명의숲을 사랑하는 회원입니다. 초록산책단으로 생명의숲과 인연을 맺고 올해부터 회원기자단 3기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우상권 산을 사랑하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식지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덕, 백선길, 조길용 회원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숲으로 함께 떠나요!
대구생명의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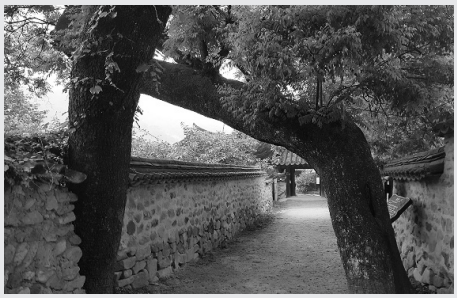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300여 회원님들과 알콩달콩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대구생명의숲'입니다. '시민과 함께 건강한 숲의 가치를 전하는 단체가 되자!'는 슬로건을 달고, 한 달에 한번 아름다운 숲으로 회원 및 시민들을 모시고 숲기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국 팔도의 아름다운 숲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좋다는 우리 회원님들. 함께 가고픈 숲이 있다면 살짝 귀띔까지 해주신답니다. 숲의 건강한 가치를 같이 나눌 줄 아는 분들이 가득한 이곳. "세상은 넓고, 가볼 숲은 많다." 지금까지 다녀온 숲도 여러 곳이지만 앞으로 함께 가볼 숲도 기대만발이라네요! 많은 분들을 아름다운 숲으로 안내하고 그 소중함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대구생명의숲,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주세요.

글. 대구생명의숲 우선영 활동가

전국에 13개의 지역 생명의숲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구생명의숲은 지역공존의숲(김천 수도산휴양림) 활동, 숲기행, 공원의 친구들 자원활동 프로그램, 어린이 숲체험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생명의숲 http://cafe.daum.net/supen ☎ 053-754-3236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58 2층

진주 대나무숲 지나, 산청 옛 마을로



대나무라 하면 대부분 전남 담양을 떠올리지만, 최근 방문한 경남 진주와 산청의 대나무숲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생명의숲 회원님들께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대나무숲 산책로를 방문해 보기 바란다. 주중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무료로 입장 할 수 있는데, 바람에 살랑거리는 대나무 잎들의 소리를 들으며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나무 유전자원 보존과 학습을 위해 조성된 죽종견본원과 남부산림과학관도 관람이 가능하다.

장소를 옮겨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되었다는 남사예담촌을 방문해 보자. 옛 돌담길이 잘 간직된 마을이며, 최씨고가, 이씨고가, 사양정사 등의 고택들이 즐비하다. 고택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시골밥상으로 식사를 하고 돌담 사이 오솔길을 따라 아침산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600년이 넘은 감나무도 만나고, 나무를 배려하여 쌓은 담장의 흔적을 통해 옛 선조의 지혜와 자연과의 어우러짐도 엿볼 수 있다.

글. 심미숙 회원기자 misuk122@daum.net

- 남부산림자원연구소: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672
- 남사예담촌: 경남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2897번길 10

한 해 생명의숲과 함께 해주신 마음들
켜켜이 쌓인 낙엽처럼 숲을 건강하게 하는 양분이 됩니다.

한 그루 나무가 되어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 후원회원 명단은 2016년 8월~10월24일의 입금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참여의숲팀(02-499-6198)으로 연락주세요!
※ 계좌오류로 인해 회비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일의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주세요! ♡
※ 명단에 회원님 이름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회비납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바로 확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명단

(유)거산 (주)사람과숲(김미경) (주)에코플러스 박준영 가람가구학교(김성수) 감승탁 강경호 강광석 강교영 강금비 강덕원 강동원
강동환 강미진 강민경 강민철 강부형 강서병 강선희 강성용 강수진 강숙경 강승희 강신도 강양호 강연아 강영부 강영순 강영식
강영애 강영진 강영진 강웅비 강윤선 강의원 강인순 강재신 강정빈 강재신 강종인 강지혜 강진솔 강진형 강충근 강태희 강현철
강혜숙 강혜순 강호상 강환보 강흥실 강희정 경현정 고 건 고경희 고대하 고동욱 고동욱 고수미 고영곤 고영삼 고유정 고은경
고은빛(홍은정) 고은설 고정호 고태경 고현승 고현주 고현희 공감대화모임(고현희) 공유택 공창협 곽노행 곽동훈 곽새별 곽영미
곽종일 곽 현 구명진 구반회 구세우 구안나 구자일 구진영 국동석 권기홍 권남호 권동현 권보경 권순호 권순호 권연조 권오경
권유현 권은경 권은숙 권정혜 권정희 권준영 권진아 권철현 권헌옥 권혁진 권혜선 기경임 기다은 길준호 길홍덕 김가혜 김경남
김경범 김경수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옥 김경옥 김경옥 김경옥 김경윤 김경일 김경하 김경훈 김경희 김관식 김광수 김광숙
김권율 김귀희 김금애 김금희 김기림 김기봉 김기원 김기현 김길례 김나영 김낙식 김난희 김남기 김남진 김남홍 김남희 김다인
김대희 김대희 김덕년 김덕진 김도현 김동범 김동엽 김동철 김란희 김만홍 김말순 김명상 김명수 김명순 김명옥 김명은 김명진
김명진 김명환 김명희 김문기 김미경 김미선 김미송 김미수 김미순 김미순 김미연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미형
김민경 김민선 김민성 김민수 김민정 김범석 김범주 김변주 김병섭 김병철 김병희 김보현 김복례 김복선 김복숙 김삼진 김상범
김상우 김상우 김상종 김상현 김상현 김상희 김생환 김서운 김석구 김석권 김석원 김석진 김선미 김선예 김선태 김선화 김선휴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 성 김성대 김성동 김성동 김성만 김성수 김성은 김성일 김성자 김성진 김소연 김소희 김솔이 김수미
김수열 김수용 김수정 김수진 김수호 김수환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순자 김순진 김승순 김승윤 김승자 김신범 김신의 김신자
김신호 김양숙 김양숙 김여선 김연수 김연실 김연중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기 김영록 김영미 김영미 김영신 김영심 김영일
김영종 김영진 김영천 김영환 김영환 김영희 김영희 김예영 김옥등 김옥숙 김옥순 김옥현 김외수 김용각 김용경 김용석 김용석
김용순 김용진 김용표 김 우 김우찬 김우철 김욱자 김원주 김원태 김유리 김유미 김유민 김유정 김유탁 김윤균 김윤영 김윤정
김윤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교 김은기 김은민 김은수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혜 김의경
김의향 김 인 김인애 김인호 김일석 김자영 김재준 김재현 김재홍 김 정 김정렬 김정미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식 김정아
김정아 김정아 김정은 김정임 김정현 김정호 김정화 김정훈 김종구 김종률 김종욱 김종하 김종화 김종회 김종훈 김주미 김주영
김주환 김준영 김준환 김지관 김지미 김지연 김지원 김지현 김지혜 김진배 김진석 김진성 김진숙 김진숙 김진연 김진우 김진웅
김진주 김진중 김진형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찬수 김찬숙 김찬주 김창배 김창환 김천규 김천숙 김철민 김철영 김초영
김춘애(성심어린이집) 김춘자 김충호 김치환 김탁현 김태엽 김태영 김태완 김태원 김태유 김태중(조은날) 김태진 김태진 김태후
김태휘 김태희 김태희 김하늘 김학용 김한동 김한석 김한수 김해영 김향선 김헌숙 김 혁 김현기 김현돈 김현미 김현미 김현양
김현옥 김현좌 김현주 김현탁 김형곤 김형미 김형섭 김형수 김형진 김혜숙 김혜숙 김혜숙 김혜영 김혜원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호선 김홍대 김홍식 김홍재 김환식 김효남 김효선 김효신 김 훈 김희나 김희발 김희순 김희영 김희중 꿈어린이집 나경숙
나영성 나옥실 나정미 나현숙 나현정 남광희 남성현 남수경 남은정 남택호 남화여 노경애 노국환 노대식 노병권 노상은 노순미
노순자 노승희 노영숙 노윤석 노은주 노주희 노준호 노하은 노화욱 도순아 도재영 류경미 류경숙 류광수 류기형 류부열 류양선
류연기 류준모 류준하 류춘희 류택규 마상규 명진숙 모미숙 모연주 문수언 문연희 문영규 문영남 문영선 문영성 문윤희 문인영
문일성 문진우 문형봉 민경섭 민경욱 민경일 민경자 민경택 민규리 민덕홍 민병석 민선조 민소진 박 건 박경서 박경선 박경신
박경태 박경희 박경희 박관순 박관영 박관원 박광렬 박광민 박군숙 박귀란 박근덕 박나연 박노호 박대훈 박동식 박동환 박두선
박래필 박말선 박명선 박문선 박미경 박미경 박미선 박미애 박미영 박민우 박병희 박보강 박복조 박삼봉 박상규 박상규 박상길
박상만 박상신 박상아 박상인 박상준 박상진 박서진 박석원 박선섭 박선영 박선희 박성관 박성동 박성현 박세영 박세정 박소연
박수운 박수일 박수진 박순자 박숙호 박승춘 박승혜 박시내 박아론아 박양호 박여숙 박연정 박영미 박영부 박영석 박영수 박영옥
박영우 박영웅 박영일 박영준 박영환 박영희 박영희 박옥규 박용선 박용준 박용진 박원규 박유미 박유준 박윤정 박윤주 박은선
박은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진 박은희 박응우 박인순 박인옥 박인호 박일종 박임자 박장환 박재영 박재옥 박재현 박재환 박점숙
박정미 박정애 박정우 박정우 박정은 박정진 박정희 박종길 박종호 박종화 박종희 박주애 박주원 박주현 박준석 박중언 박지영
박지웅 박지현 박지훈 박진선 박진옥 박찬열 박찬은 박철 박철욱 박충선 박향숙 박현서 박현숙 박현아 박형건 박혜란 박혜숙
박혜정 박홍철 박환용 박후서 방미숙 방미애 방석진 방애림 방영미 방영숙 방완수 방재숙 배말금 배미경 배민경 배상범 배선옥
배소영(김미라) 배 숙 배영지 배은경 배은영 배정현 백공열 백상윤 백선길 백순란 백운학 백윤식 백인석 백종민 백종철 백철기
백현석 백혜숙 변가혜 변계훈 변재상 변준섭 변한주 변향영 복종경 빈남옥 사근숙 사지원 서경미 서경전 서덕순 서동희 서문홍
서민정 서봉균 서봉석 서상한 서석재 서승목 서영삼 서영희 서원식 서은석 서은주 서은진 서정아 서주현 서진석 서한교 석대명
선우희태 선진섭 성규철 성규홍 성미주 성순준 성연수 성용호 성윤미 성주인 성주한 성필선 성효인 소명준 소미현 소종석 소종섭
손기연 손기원 손기철 손무원 손영란 손재진 손정경 손정아 손철호 송가형 송경림 송근우 송명희 송미선 송미현 송민영 송석병
송선자 송수진 송윤정 송은정 송인섭 송인주 송정순 송정희 송지은 송현진 수작사계(이중희) 시원혜 신경란 신경원 신경준 신광일
신금랑 신기수 신기황 신나리 신동섭 신동호 신미경 신선문 신선미 신수근 신수안 신순애 신애라 신연숙 신영 신영보 신영삼
신영희 신용란 신우진 신 웅 신유나 신윤정 신은경 신은지 신의희 신자영 신재우 신주환 신준환 신지원 신창기 신충호 신항식
신해영 신현승 신현주 신현팔 심경미 심미숙 심선옥 심순희 심영권 심우갑 심재군 심재영 심재희 심전섭 심지선 심태욱 심형준
안경근 안광원 안민자 안민지 안병빈 안병춘 안병호 안부섭 안성은 안수정 안승숙 안영님 안영복 안원진 안은선 안은주 안정식
안종엽 안지연 안지혜 안태건 안태상 안 현 안혜림 안호기 안호진 안효숙 안희경 안희진 애드투페이퍼@양정 양경모 양길승
양병이 양성영 양승남 양승수 양예수 양은경 양이석 양진희 양채윤 양태인 양해경 양현숙 양혜화 양희연 엄수경 엄시현 여동미
여지은 염순영 염원일 염은영 염형철 엽정식 오강임 오동훈 오명훈 오미환 오민수 오범석 오성희 오세훈 오영조 오원구 오원일
오은선 오정수 오주영 오창길 오창민 오충현 오형은 오혜선(권용호) 오희수 오희수 옥선자 온수진 온형근 왕윤래 왕은숙 왕준호
용환택 우명원 우상권 우수영 우아미 우연순 우정호 우지현 우지희 우창영 우태구 우희경 우희정 원구연 원미현 원윤희 원종임
원지영 원화식 위미숙 유경태 유계영 유두현 유 란 유리화 유병오 유상현 유선재 유성미 유성민 유성은 유순희 유승우 유시훈

유애순 유영갑 유영규 유영민 유은지 유재승 유재심 유정상 유정아 유주희 유중하 유지영 유지용 유지원 유진상 유효중 윤 각
윤경혜 윤경희 윤광수 윤근식 윤남희 윤동열 윤말임 윤문선 윤미란 윤병선 윤상우 윤서연 윤석분 윤석원 윤석자 윤선아 윤선주
윤선희 윤세린 윤소원 윤숙연 윤순환 윤여종 윤여진 윤여창 윤연숙 윤영균 윤영미 윤영주 윤자영 윤자희 윤장노 윤정숙 윤정현
윤준민 윤지동 윤 진 윤 진 윤차중 윤춘경 윤태우 윤태윤 윤한별 윤현숙 윤혜영 윤혜정 윤희연 윤희연 이갑순 이강명 이강민
이강세 이강오 이강현 이건상 이경두 이경란 이경미 이경민 이경수 이경신 이경아 이경열 이경주 이경학 이경훈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고운 이광교 이광문 이국창 이근아 이기세 이기승 이기현 이기혜 이나현 이낙원 이난영 이대건 이대근 이덕근 이덕용
이도한 이도희 이동열 이동우 이동준 이동철 이동춘 이동하 이동환 이두나 이득영 이 라 이 란 이리나 이만용 이만준 이명덕
이명동 이명섭 이명숙 이명진 이명채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란 이미선 이미아 이미영 이민석 이민옥 이병함
이보미 이보연 이복만 이봉재 이상님 이상도 이상문 이상미 이상민 이상복 이상우 이상은 이상인 이상인 이상진 이상헌 이상현
이상훈 이석재 이석현 이선경 이선길 이선주 이선화 이선희 이성아 이성우 이성환 이성희 이성희 이세영 이세현 이소리 이소민
이소연 이수경 이수민 이수연 이수연 이수정 이수현 이순애 이순영 이순혁 이승담 이승미 이승연 이승우 이승은 이승준 이승준
이승준 이승호 이승희 이아라 이양구 이연옥 이연원 이연희 이 영 이영미 이영애 이영의 이영주 이영희 이예숙 이용구 이용권
이용남 이용성 이용직 이용훈 이우상 이원구 이원덕 이원미 이원숙 이유정 이윤승 이윤정 이윤주 이율리 이은기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순 이은옥 이은진 이은하 이응렬 이인선 이인숙 이일남 이임덕 이장춘 이재붕 이재삼 이재석 이재성
이재식 이재영 이재영 이재원 이재원 이재진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심 이정아 이정우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갑
이종궐 이종민 이종섭 이종원 이종윤 이종호 이주식 이주연 이주현 이주훈 이주희 이준기 이준미 이중무 이지연 이지연 이지열
이지영 이지우 이지원 이지현 이지현 이지현 이진구 이진규 이진명 이진석 이진숙 이진숙 이진연 이창복 이창준 이철우 이철재
이춘선 이춘희 이춘희 이충선 이태석 이태제 이학송 이한구 이한규 이한신 이행종 이향란 이향미 이향배 이현경 이현경 이현숙
이현아 이현임 이현호 이형준 이혜민 이혜성 이혜수 이혜영 이혜영 이혜은 이혜지 이호연 이호영 이호일 이화선 이화진 이환규
이효수 이희성 이희수 이희진 인은수 인창혁 임경숙 임경순 임경철 임군자 임대성 임동준 임명철 임미경 임미정 임병을 임복규
임복희 임상섭 임상준 임선희 임성은 임성주 임성진 임성후 임수경 임수현 임영선 임옥남 임원택 임월연 임은미 임재우 임재훈
임정현 임정현 임종길 임종수 임종필 임종환 임중백 임지연 임현아 임현철 임형묵 임혜주 임효진 장경갑 장광은 장대익 장 령
장 만 장미아 장석일 장석재 장순우 장승남 장영건 장영수 장영숙 장영실 장예령 장옥주 장우혁 장원영 장은영 장인수 장일식
장정욱 장정희 장종식 장 진 장진아 장창수 장태수 장태혁 장학영 장한빈 장호찬 전경순 전계명 전국완 전미경 전병윤 전석연
전선영 전숙례 전순복 전영배 전영완 전영훈 전용관 전용훈 전유경 전은주 전의찬 전인하 전재숙 전지언 전지현 전지호 전지희
전필수 전현주 전형남 정경숙 정경희 정계임 정고은 정구갑 정구석 정규연 정달운 정란 정란아 정래영 정만금 정명숙 정명희
정미나 정미나 정미라 정미선 정미순 정미아 정미애 정미영 정미자 정민채 정병준 정선희 정성문 정성재 정송남 정수옥 정순화
정순희 정승준 정애숙 정애자 정양희 정영란 정영옥 정영일 정영진 정예린 정옥연 정용록 정용숙 정유민 정유진 정은수 정은연
정은희 정재규 정재영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정온 정주열 정주영 정지숙 정지영(강희산) 정지용 정진영 정진영 정찬명 정찬미
정철호 정태성 정태수 정택진 정하돈 정 혁 정현경 정현규 정현진 정혜영 정혜주 정회식 정효진 정훈형 정 희 정희수 정희옥
정희정 정희정 제갈명필 조강희 조경숙 조경오 조경혜 조규남 조규식 조금선 조길용 조동길 조만희 조명자 조명현 조복님 조사인
조석호 조성숙 조성희 조순정 조순희 조연순 조연희 조영래 조영미 조영선 조영중 조영천 조영철 조영희 조옥천 조용진 조운연
조유환 조윤숙 조은빛 조인규 조재형 조정윤 조정희 조제형 조준영 조찬수 조찬희 조치흠 조한숙 조한식 조해영 조현자 조호석
조홍연 주경희 주만석 주복희 주소영 주영량 주원혜 주은옥 주증원 주창호 주형선 주혜린 지귀현 지나지산 지옥영 지원희 지인구
지후자 진문석 진상현 진용주 진우석 진윤주 진은순 진하영 차승연 차유정 차윤정 차은주 차은지 차준희 차지철 채수명 채수진
채 일 채현순 채희옥 채희정 천각규 천경화 천민경 천유정 천향미 천희경 청파교회아동부 최건애 최경아 최근홍 최동준 최명은
최문섭 최미숙 최미자 최미향 최민수 최병걸 최병언 최상규 최성수 최성애 최세경 최소영 최소현 최수진 최숙경 최숙영 최순님
최순실(김정아) 최승갑 최승일 최승희 최여은 최연진 최영미 최영순 최영신 최영임 최영준 최영호 최영환 최예정 최용석 최용수
최용희 최웅찬 최원선 최윤정 최윤정 최윤종 최은미 최은비 최은숙 최은호 최재린 최재숙 최정식 최정실 최준원 최지원 최진수
최진숙 최진현 최찬순 최춘성 최태분 최태영 최하얀 최해정 최현미 최현미 최현섭 최현수 최현정 최현준 최호연 최홍석 최희진
추은영 추지희 태유리 편윤국 하나연 하 람 하상교 하세리나 하승미 하승훈 하시연 하용식 하정민 하지수 하태국 하태석 하현신
하현수 한경석 한경석 한경석 한국환경교육연구소 한상민 한상욱 한새롬 한선규 한송이 한수현 한순아 한승훈 한은주 한재숙
한재현 한재호 한점숙 한정민 한정연 한주옥 한태이 한현주 한혜경 한희선 함순애 함재춘 함지영 함형복 함희숙 함희영 허근행
허상만 허안숙 허윤규 허 은 허진경 허학영 현경호 현승엽 현정오 현정훈 현중섭 현철호 홍경자 홍대원 홍상기 홍석권 홍선기
홍설희 홍성권 홍성민 홍성숙 홍성희 홍소현 홍수연 홍수자 홍순동 홍윤정 홍인숙 홍정순 홍종숙 홍찬의 홍하표 황경택 황규현
황길식 황동규 황득주 황명숙 황봉규 황선영 황성빈 황세희 황수현 황순덕 황순일 황순진 황원회 황재광 황정연 황정하 황지영
황지현 황춘옥 황춘호 황치애 황혜경 황효심 황희정

연납부회원

강대찬 강석철 곽정수 구금순 김광호 김근용 김동섭 김무창 김선아 김성열 김성택 김영조 김윤기 김인석 김주현 김지한 김한담
김형규 김혜정 김홍연 김후란 남윤택 문 인 문현채 박경숙 박근우 박문한 박문환 박백범 박상언 박순옥 박용희 박원철 박윤정
박주현 박혜영 박혜영 박호진 배용래 백승주백주열 서경석 서백영 서승진 신경희 신만용 신서희 신은희 양순례 양완철 엄명숙
예견희 유근옥 유병배 유종아 유종호 유태환 윤상구 윤태병 이경숙 이경원 이경재 이돈구 이동섭 이미정 이미정 이봉교 이선주
이성숙 이성우 이성일 이소령 이숙희 이순이 이순주 이영재 이용상 이용섭 이임영 이재룡 이정화 이종각 이주희 이창국 이충미
이현호 이희삼 임원애 임홍순 장경환 장미령 장성환 장진호 장평식 장현수 전혜민 정승선 정완봉 정현주 조만환 조영숙 주용석
천문식 최돈하 최상술 최성원 최승연 최영택 최은숙 최재영 최창진 표병혁 한경수 한국양묘협회 홍보영 황선애 황종각 황지숙

기업회원

(주)굿필코리아 (주)다온조경 (주)랜드아키생태조경 (주)비코트립 (주)신흥이앤지 (주)에코펌 (주)월송나무병원(김철응)
(주)풀무원홀딩스서울지점 (주)해냄솔루션 머스턴(박보강) 알앤비코(RNBco) 우신건업(주) 유한킴벌리 일송환경복원(주) ㈜대명화학
㈜동심원조경 ㈜수프로 주식회사지앤푸드 ㈜유한양행

평생회원

곽두일 권상진 김경일 김성훈 김인식 김정균 김중곤 김태진 노만경 노영희 문국현 박미호 박예식 박창준 박필선 배상원
서현종(진원스님) 손승우 신문수 엄대식 우종민 윤영각 이동진 이득우 이명주 이선민 이원화 이재현 임원준 전영우 전정일
조연환 조용성 조효봉 한경식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2016년 생명의숲 회원의밤

숲을 통한 아름다운 변화

2016년 12월 7일(수) 저녁 6시 30분
서강대 곤자가 컨벤션

답답하고 어지러운 시대, 숲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명의숲에서 만난 작은 변화의 씨앗들을 짚어봅니다.

숲을 통한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는 시간
생명의숲 회.원.의.밤.에 함께 해주세요.

| 모시는 이 |

이사장 이돈구 공동대표 마상규 지영선 최규복 운영위원장 김재현 사무처장 유영민

프로그램 | 18:30 ~ 21:00

- 숲이 빛나는 밤에 : 생명의숲에서 만난 변화의 이야기
  내가 그리는 생명의숲 2017
- 2016년 돌아보기
- 나눔 공연
- 저녁식사 18:40에 시작됩니다.

함께 하는 방법

- 생명의숲을 소개하고 싶은 지인과 함께 오세요!
- 행사 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12월 1일(목)까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알려주세요.
- 나눔공연에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 회원님께서는 사무처로 전화주세요.
- **다른 회원들과 나누고싶은 간식, 선물 후원받습니다. 전화주세요. 재능**

생명의숲 후원계좌

- 농협 1127-01-129277 예금주. (사)생명의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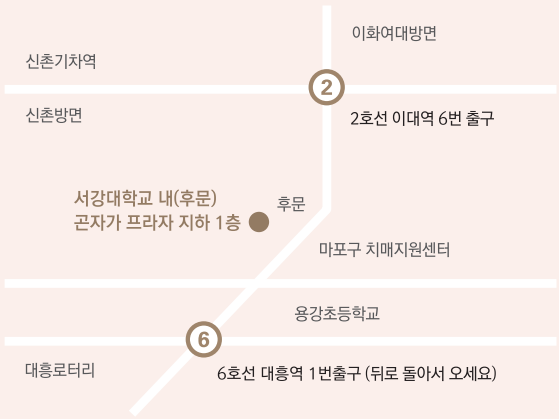
오시는 길

곤자가 컨벤션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문의 | 02)711-3115

교통편

- 지하철
  6호선 대흥역 1번 출구 (도보 5분) 2호선 이대역 6번 출구 (도보 15분)
- 버스(서강대 후문 앞 하차)
  간선(파랑) 153, 163 지선(초록) 5712, 5714, 6712



생명의숲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 숲센터 5층 02-735-3232
홈페이지 www.forest.or.kr | **메일** forestfl@chol.com | **블로그** forestforlife.tistory.com
페이스북 /forestfl | **카카오톡** '생명의숲' 친구추가

발행처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생명의숲 회원기자단** 정희(단장) 김양숙 류춘희 백선길 심미숙 안민자 우상권 이명덕 조길용 **자문**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